

제 1 여전도회 남이섬을 다녀와서

지난 10월10일(수) 제1여전도회 회원 36명은 남이섬으로 가을수련회를 다녀왔다. 이곳은 원래 홍수 때만 섬이 되었다가 1944년 청평댐이 만들어지면서 온전한 섬 모양을 갖추었으며, 남이장군의 이름을 따서 남이섬이라고 불러 지게 되었다고 한다.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5 정도, KBS 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나는 드라마 겨울 연가를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무척 기대가 되었다. 여기에 알밤도 주울 수 있다니 이런 횡재가 또 있을까? 일기예보에 당일 비가 내린다고 하였지만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한 결과 당일 비는 내리지 않았다. 하나

님께 감사드리며 9시가 조금 지나 남이섬을 향해 출발하였다. 창밖으로 보는 가을 풍경은 아직 가을을 느끼기에는 조금은 이른 듯, 단풍이나 가을 들녘은 보이지 않았다. 1시간 조금 넘게 달려서 드디어 섬으로 가는 선착장에 도착하였다. 바로 앞에 보이는 섬을 바라보면서 배를 탄지 불과 5분도 되지 않아 섬에 도착하였다. 따뜻한 점심은 준비한 회원의 정성을 느끼게 하였다. 식사 후 짝을지어 자유로이 산책하며 한가한 시간들을 보냈다. 숲과 나무로 둘러싸인 섬은 간간이 청설모와 다람쥐들이 보이고 나무 사이로 쪽 골은길은 자연이 준 예술이었다. 여기에 청평호수위를 간간이 오가는 작은 유람선은 한쪽의 그림이었다. 청평호수를 따라 섬을 한 바퀴 돌다보니 언제부터인지 나무사이로 밝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은 더욱 맑아 보였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다시 한번 감



사를 드렸다. 이제 올해 마지막 수련회를 보내면서 회원서로가 더욱 가까이 지내며 제1여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굳건히 세워지기를 기대 한다. 비록 알밤은 줍지 못했지만 청평호수의 아름다움과 남이섬의 자연이 잘 어우러진 멋진 풍광을 즐긴 하루였다.
<황옥자권사>

백골부대 진중세례식을 다녀와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식되었나니(롬6:4)'

9월22일(토) 군경선교팀에서 중부전선에 있는 백골부대를 찾았다. 차창에 비치는 풍경을 바라보며 오는 가을을 만끽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절의 아름다움을 듬뿍느끼며 도착하여 안보견학을 하였다. 맑은 하늘에 멀리서 내려다보이는 적군의 진지를 바라보면서 지난날 피비린내 나던 격전지에서의 선배님들의 조국수호의 투혼을 엿볼 수가 있었다. 한치의 땅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서 흘렸던 피가 지금 우리가 풍요롭게 잘 살고 있는 밑거름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먼저 간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끊어진 녹선 철도는 언제 이어질지는 하나님만이 알고계실 것이다. 1926년에 생긴 금강산 전기철도로 내금강까지 116KM를 전기 열차가 관광객들과 화물을 운송하며 다녔다고 한다. 어서 통일이 되어 끊어진 철도를 이어 남북으로 하나가 되는 세상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오늘 진중세례식에서 세례를 받는 장병들의 힘이 대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세례장병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주님의교회 청년부가 함께하여 찬양으로 장병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다. 같이 즐거워하고 웃으며 한때를 보냈던 그들에게 주님의 자녀로 열매를 맺고 믿음의 씨앗이 자랄 때 통일은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날을 기대하며 두손을 모아 기도를 드린다. "주님! 이루어주시옵소서....." 하고 <군경선교팀 최오섭 집사>

땅끝 편지 _10

이번 '여행'에서 전환점

사랑은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아니라 "구하는 것." 주기만 하면 상대방이 숨릴 수가 없고, 받기만 하면 내가 줄 수 있는게 상처밖에 없다. 사랑을 구하는 데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다. 사랑을 소망하고 사랑을 믿고 마침내 사랑하는 것. 모든 성서적 은유가 살아나 돌아온다. 어째서 믿음, 소망, 사랑인지, 구하면 얻을 것이라고 했는지. 내 초라한 옷을 벗고 나아갈 수 있길. 이제 머리로는 알았으니 몸으로 직접 살아봐야겠다. 너무 어렵다. 백 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살아냈으면! 제발! 현학이나 관념에 빠지지 않고, 가장 간결한 언어로. 당신을 사랑할 수 있길. <청년부 황희수>

2012년 함글함글에서는 "땅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표어에 기초하여 땅끝원고를 받고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를 고백하고 치유하며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hamletter@hanmail.net으로 보내주시면 편집회의를 거쳐 실어드리겠습니다. _편집자

부르심의 길에 서서 _10

“純全之愛” (순전지애) _최용석 목사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외할머니의 깊은 사랑의 기도와 부모님의 신앙훈련을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시절을 돌아보면, C.C.C(한국대학생선교회)활동을 통해 청년의 열정을 배울 수 있었으며, 국내외 다양한 선교활동들과 양육사역을 통해 사람 낚는 어부의 회열을 맛보았습니다. 대학졸업과 함께 인생의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던 중 신학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불러주셨다는 감격과 함께 때때로 저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부르심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좀 더 깊이 느끼게 해 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오직 주인 되신 예수님께만 쓰임 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의 좌우명은

“純全之愛하면 純全之美하고, 純全之美하면 純全之命한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그 형상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 주신 사명을 생명 다해 감당하는 삶.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장애인과 나들이 중에서

하늘이 맑아서.. 공기가 좋아서 분위기가 좋아서..예쁜 단풍이 만들어지듯.. 당신들과 함께한 동행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붉게 물들어가는 가을 단풍의 아름다움이 서서히 물들어 옵니다. 작년에 이어 2012년도에도 지체장애인팀과 청각장애인 그리고 봉사자들과 함께 10월 13일(토)에 7-8엘리아 겨자씨 4명이 호암 미술관에 나들이 섬김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함께 휠체어도 밀어주며 예술품 감상도 하며 단풍도 구경하며 같이 식사도 하며 함께함에 그리고 짧은 오락시간에 퀴즈도 풀어가며 정답을 맞추면서 웃음을 나누는 기회와 사랑을 느낀다는 말 속에서 즐거웠던 시간들이 벌써 추억이 되었습니다. <김라마 권사>



베트남어 초급반 강좌 운영



주님의교회 해외선교분과위원회에서는 베트남어 초급반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초급반 1기를 운영한 바 있으며 이제 2기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2기는 10월부터 6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저녁에 90분간 운영될 예정이며 강사는 숙명여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Nguyen Thi Thu Ha 선생님입니다. 금번 강좌는 우리 교회 교우 외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였으며 현재 25인이 신청하여 10월 6일 힘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교재는 MP3 화일이 있는 한국외국어대 출판부의 교재이어서 쉽게 듣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 강좌는 베트남 다문화가정에도 공개되어 있으며 이 강좌가 교회부설 '섬김과 나눔'의 다문화가족 사역에도 일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좌가 궁극적으로 베트남 선교에 뜻이 있는 여러 교우님들에게 선교에 유용한 언어교육의 장으로서 자리잡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목사님들과 교우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용규 집사>

기도 어머니 가을 수련회

10월16일 정신여,중고에서 기도어머니와 사랑어머니로 봉사하는 49명의 성도님들이 광릉 수목원으로 가을 수련회를 다녀왔다. 가을 단풍이 물들어 가기 시작한 숲에서 박혜성 목사님은 출애굽기 15장27절 말씀을 통해 지친 이스라엘 백성이 '큰나무'라는 뜻의 엘림에 이르러 목을 축여줄 샘과 나무를 만났듯 정신여고 친구들의 엘림이 되자는 귀한 소명을 다시 일깨워 주셨다. 이후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면서 남아 있던 약간의 어색함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또한 정신여중의 사랑 어머니, 정신여고의 기도 어머니로 학생들을 만나면서 받았던 축복과 은혜를 나누며 귀한 시간을 가졌다. 청명한 하늘과 맑은 공기는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이은주 기자>



청년부 LETS 5기 개강



청년부 예비리더교육 훈련프로그램인 LETS(Leadership Education & Training School) 5기가 10월 13일(토) 개강하였습니다. LETS 훈련이 2011년에 시작된 이래 100여 명의 청년들이 헌신된 리더로 세워지기 위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번 LETS 훈련에는 30명의 청년들이 참석하였으며, 이들은 앞으로 8주간 다양한 강의(영성, 구원, 성경, 예배, 겨자씨 인도, 리더십), 경건 훈련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청년들은 LETS 훈련을 통하여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영성을 갖춘 리더로 세워지기 위해 훈련받을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and 세상 등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8주간 훈련의 과정을 통해 청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헌신된 제자로 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정민 전도사>

* 성경_한자로 풀어보기

전화신앙 상담 ☎ 416-5183

화 ~ 토요일 : 오전 9 - 12시, 오후 1 - 5시 (토요일은 오전만)

感謝 (감사)

시온의 자녀들이 너희는 너희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 할 지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요엘 2:23-24)

가뭄과 颱風(태풍)의 어려움을 克服(극복)케 하시고 햇볕과 비와 바람을 주사 豐饒(풍요)로운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感謝(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새겨보자.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感(느낄 감) : “모든 것”을 뜻하는 咸(다 함)과 “생각을 총괄하는” 心(마음 심)의 결합문자로 『 모든 생각의 결집체인 마음으로 직접 느낀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謝(사례할 사) : “말 과 글”을 대표하는 言(말씀 언)에 “쏘다. 나가다. 빠르다”의 뜻이 있는 射(쏜 사)를 결합하여 『 말이나 글로써 빨리 표현해야 하는 것이 사례함이다』라는 의미를 만들었다.

*謝禮(사례) : 言行(언행)이나 金品(금품)으로 고마운 뜻을 나타내는 人事(인사).

★射(쏜 사) : “사람의 신체”를 뜻하는 身(몸 신)과 “범도, 격식”을 뜻하는 寸(마디 촌)을 합쳐 “몸의 균형을 법도대로 잡고 화살을 쏜다”라는 문자를 만들었다.

< 노대홍 기자 _ rdhteacher@hanmail.net >

|오늘의 말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니라.”

_ 시 4 : 7

통 권 _ 제 309호
발행인 _ 담임목사 박원호
편집인 _ 미디어위원장 박대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12년 10월 21일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추수감사절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수확의 절기

홍기협 :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 동안 씨 뿌리고 가꾸느라 애쓰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정책 당회 등 향후 교회 사역에 대한 구상과 설계로 바쁜 시간을 보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참 바쁘게 보낸 한해입니다. 비전 트립 등 다양한 사역과 함께하며 보내다 보니, 며칠이라도 쉬고 싶었는데 그럴 여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웃음)



홍기협 : 추수감사절은 맥추절에 이은 교회의 중요한 절기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기독교의 절기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탄의 세력을 굴복시키는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라고 하시던 목사님 말씀이 기억납니다. 우선 추수감사절이 어디에서 유래되었고,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추수감사절은 원래 영국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후에 유래한 절기입니다. 그들이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

지난 10월 17일 오후 5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함글함글>에서는 박원호 담임목사를 인터뷰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현대 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인터뷰는 홍기협 함글함글 편집장이 진행했다. <편집부>

는 동안 추위와 굶주림과 풍토병으로 겨우 52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지금의 플리머스에서 이들이 굳은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얻은 첫 수확으로 지낸 3일 동안의 감사제가 추수감사절의 첫출발이었습니다. 1789년에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이 11월 26일을 감사절로 공포했고, 1863년에는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선포하면서 전 미국인들의 명절이 됩니다. 이후 루즈벨트 대통령이 11월 셋째 수요일로 정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04년 무렵 장로교에서 처음으로 11월 10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신명기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수장절과 초막절이 지금의 추수감사절의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큰 명절입니다. 헤어져 있던 가족이 모이기도 하고, 큰 상점들이 일제히 세일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칠면조 요리를 준비해서 서로 나누는 것도 풍습의 하나이지요. 우리의 추석 명절과 흔히 유사한

절기로 보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추석이 가족 중심의 명절인 데 비해, 추수감사절은 조금 더 사회적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는 미국 사람들은 흔히 소외된 이웃을 초청하곤 합니다. 저도 유학 시절에, 추수감사절에 초청받아 식사를 같이하면서 감사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홍기협 : 물질의 우상 등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과 대항하는 영적인 씨름에서 이겨서 세상과 생명을 살리는 길은, 우선 교회 절기의 여러 전통을 이해하고, 그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부활절에는 예배드라마의 형식으로 절기를 기리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런 큰 프로그램을 한 해에 연거푸 하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혹시 올해 따로 준비하신 프로그램이 있는지요? 아니면 역사적으로 추수감사절에 시행해왔던 교회의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는지요?

▶ 주님의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음악회를 열어 추수감사절을 기념하곤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수감사절도 큰 절기이므로 의미 있는 더 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겠지만, 지난 부활절의 예배드라마처럼 큰 행사를 한 해에 두 번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입

니다(웃음). 다른 형태의 기념될 행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초청해 식사를 하는 좋은 풍습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식이란 공동체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고, 가족의 영역을 넓히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홍기협 :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가족은 꼭 피를 나누어야만 가족이 아니다”라는 말이 기억나는군요. 손 코네리가 주연한 <파인딩 포레스터>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은둔한 작가가 농구를 하던 흑인 소년의 재능을 발견해 도와주는 영화였습니다. 겨자 씨 또는 개인 가정에서 초청하는 방식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다문화가정을 초청해서 식사를 같이 하는 행사는 어떨까요? 이번에 진행할 걷기 대회와 관련해서 추진할 수도 있겠지요. 아무튼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기협 : 교회의 절기의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계절의 변화에 따른, 전통 사회의 보편적 생활 리듬에 기원했을 수가 있겠습니다. 4~50년 전만 해도, 한국 사회는 전형적인 농촌의 생활

주간 목회력

<2012하반기 세계예식>
-10.28(주일) 4부 예배시
<사역박람회 1인 1사역 갖기 운동>
-10.21: 국내선교 / 28: 북한, 해외선교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전교인 걷기대회>
-10.27(토) 오전9시 / 참가비:1만원이상
<추수감사절 썰나눔행사>
-접수: 10.21,28(주일) / 현관접수처

<2012북한선교를 위한 바자회 물품접수>
-10.21(주일) 오전8:30~오후2:00
<제8기 결혼예비학교>
-일정: 11.4~25 (매주) 오후4:00부터

리듬이 중심이었기에,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가 자연스럽게 보편적 감성과 어울릴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농촌 사회에서 벗어나, 급속하게 산업화 시대를 돌파하여 후기 산업화 시대에 이른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가을이 되더라도 이런 정서가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인 도시화 때문이라도 피부로 느끼는 계절감의 실체가 약해진 것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추수감사절이 우리 현대사회에 갖는 의미를 어떻게 확장해 볼 수 있을까요?

▶ 좋은 지적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처음 아메리카 대륙의 이주민들이 드릴 때의 그 감동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갖은 고난 가운데에서 거둔 수확물에 대한 감사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개인의 수확물이 없으니, 공감도 사라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전통 농업 사회에서는 직접 추수를 한 곡식에 감사하는 전통이 가능했지만, 추수감사절이 후기 산업화사회에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의 계절감은 가을이 되어 추수를 하던 시절과는 너무 달라졌습니다. 모두들 항상 바쁩니다. 그러니, 추수감사절에 드리던 감사의 의미를 후기 산업화사회에 어떻게 적용하여야 할지 하나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시대에 맞게 그 의미를 새롭게 정의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추석감사절이라는 용어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추석 절기와 함께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개교회가 고민할 일인지, 교회의 연합체에서 새롭게 의미를 규정할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라는 의미에는 변함이 없겠지요.

홍기협 :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태복음 28:19~20) 라는 말씀에 따라, “땅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올해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교육의 해’로

정하고, 세계 선교와 청년, 청소년, 어린이 대상의 교육에 역점을 둔 한해였다고 기억합니다. 올 한해 거둔 수확으로 가장 감사하다고 생각하시는 일은 무엇 인지요?

▶ 교육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방법과 통로로 여러 가지 씨를 뿌린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교육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친구사역은 올해 180명이 참여해서 거의 모든 분이 성공적으로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 모임에서 나온 얘기인데, 장로회 통합 교회들 가운데, 예수친구사역이나 12단계 성경공부와 같은 유용한 교육 과정이 드물다고 합니다. 주님의교회에서 진행하는 이런 양육 프로그램을 좀 더 잘 정리해서, 대외적으로도 확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선교 교육에서는, 베트남과 케냐와 교육선교에 대한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그에 따라 베트남과 케냐에서 각각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울 일은 바로 그 내면을 채우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이 중요합니다. 인재를 키우고,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일에 특히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는 청소년 사역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번의 정책당회에서 아주 중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정신학교 건물에 부속한 청소년센터 건립 건이 정책 당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물론 제직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공동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확정될 일입니다.

홍기협 : 목사님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추수감사절에 대한 기억을 말씀해 주십시오.

▶ 유학시절, 또 미국에서 목회를 하던 시절에는 큰 교회에서, 또 어떤 가정에서 추수감사절에 초대받아 따뜻한 식사를 대접받곤 했습니다. 소박하지만 감동적인 추억입니다.

또, 아마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에 피칸 파이를 보내주는 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피칸 파이 회사가 있어서, 미리 명단을 알려 주면 추수감사절에 맞추어 피칸파이를 배달해주는 것이지요. 비싼 것은 아



니지만 받는 사람은 무척 행복합니다. 저에게도 보내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받을 때마다 그 따뜻한 마음에 흐뭇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교회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쌀을 모아 전달하고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런 피칸파이 같은 어떤 특별한 음식을 주님의교회 이름으로 여러 이웃에게 보내는 방안을 강구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좋은 풍습으로 만들어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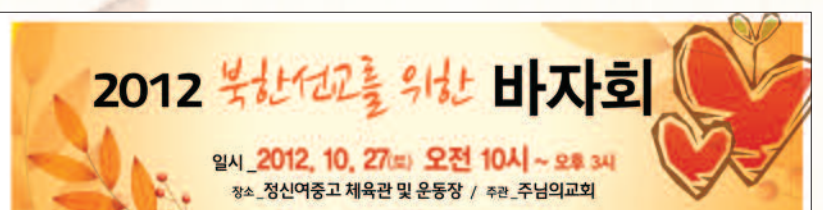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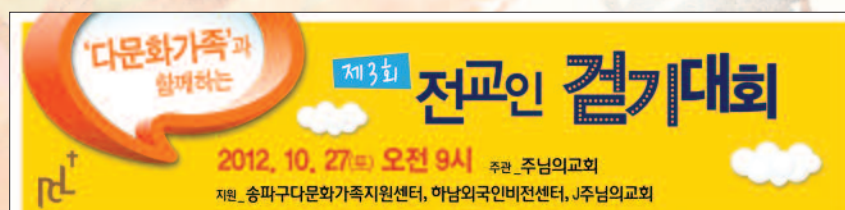
홍기협 :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도 이제 두어 달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 추수감사절을 맞아 주님의교회 성도에게 전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올해도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다고 느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멀리도 보고 넓게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주님의교회에 도움을 청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 교회는 많으나, 이웃을 주님의교회처럼 성의껏 돕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좀더 풍성하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고, 암과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교인 여러분 한분 한분이 우리의 알곡이자 소망입니다. 올해의 남은 기간,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되고 치유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편집부>

2012. 10. 27 토요일 오전 9시!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전교인 걷기대회의 날입니다.

제3회 전교인 걷기대회가 바자회 행사와 함께 10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열린다. 금년에 걷기대회와 바자회 행사를 함께 하게 된 것은 두 행사에 참가하는 교우들에게 공동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걷기대회 행사는 3년 전부터 다문화가족과 함께 걸으며 친목을 도모하고 이를 계기로 겨자씨모임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친목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완도 갈문 교회에서 온 편지

_ 봉사자들 헌신에 감사드리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숨씨는 참 놀랍고 위대하십니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있고 작은 섬들이 많이 있는 완도 갈문교회입니다. 섬이지만 조용한 시골 농촌에 위치한 우리 갈문교회는 약 70가구에 독거노인이 34분 거주하고 있으며 20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아담하고 예쁜 교회입니다. 30년 전에 낮에는 바쁜 농사일들을 하고 밤에 달빛을 받으며 벽돌 한 장 한 장을 머리에 이고 만든 교회가 지금의 갈문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80세가 되신 집사님은 “30년 전에 벽돌을 머리에 이고 다녀서 대머리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웃기도 합니다. 눈물과 헌신(獻身)으로 어렵게 만들어진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이번 여러 차례의 태풍으로 인해 교회 지붕과 사택 지붕이 날아가 파손되었습니다. 위치상 동네 맨 꼭대기에 있어 주님을 믿지 않는 동네 어르신들의 걱정도 태산처럼 높았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시편81:10)’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아

사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마음이 뜨거운 분 파손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신 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통해 헌신(獻身) 하고자 다짐하신 분들을 보내주소서. 우리 교인들이 모두 동참하여 처음 벽돌을 한 장 한 장을 올려 만들었던 것처럼... 처음 첫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채워주셨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기도한 대로 채워 주셨습니다. 주님의교회는 올해 저희 갈문교회에 목회자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교회입니다. ‘이번 태풍에 교회 피해는 없냐’는 농.어촌 선교 부장의 전화가 왔고 서울에서 완도까지의 거리가 어디인데 왕복 1000km를 직접 눈으로 현장 확인을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위로가 되었는데 물질이 아닌 봉사하시는 분들이 직접 오셔서 보수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약 2주 동안 섬겨 주셨습니다. 높은 성전 지붕

에 올라가서 미끄러움으로 위험한 상황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獻身) 하시는 분들, 못 하나라도 더 박아서 바람 많은 이곳이 더 안전해야 한다는 분들, 공사에 바쁜 분들 안전에 신경 쓰기를 당부 하면서 안전모 쓰기를 권하는 사랑 많으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분들이었습니다. 내 사업을 직장을 가정을 뒤로하고 오신 저 봉사자들을 그냥 두시면 하나님 절대로 안돼요. 꼭 저분들 책임져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주님의교회 봉사자들이 이곳에 와서 고생한다고 80대 집사님들이 실버 유모차에 이것저것 섬길 수 있는 음료와 쌀 그리고 손수 만드신 반찬 등을 가지고 힘겹게 교회로 올라오는 모습에 저희 목회자는 큰 힘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파손된 성전이 회복 된 것처럼 저희 성도 각자의 신앙도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도를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기도 체험도 하였습니다. 이곳 갈문교회 성도들은 하늘나라 가실 때 까지 자랑 거리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의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과 농.어촌 선교팀 이곳에서 헌신(獻身)한 모든 봉사자들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저희 교인들과 함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_ 갈문교회 진총열 목사 올림.



정신여고 예랑캠프에 다녀와서

숲속에서 맑은 수다가 번져 왔다. 정신여고 예랑캠프가 있는 날 오후 프로그램에 맞추어 팀수양관에 도착하니 북한산 자락은 찬란했다. 강렬했던 여름을 이겨낸 싱싱한 푸름이 먼저 반겼다. 그리고 그곳에 더 푸르고 건강한 정신여고 친구들이 있었다. “애들아!” ‘기도 어머니’로 만났던 우리 반 친구들을 찾아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 교복을 벗고 만난 우리 반 친구들은 더 밝고 생동감이 넘쳤다. 평소에는 어색하게 아는 척을 하던 아이들도 달려와 인사를 하고 팔짱을 껴다. 정신여고 친구들을 매달 한번 씩 ‘기도 어머니’란 이름으로 만나면서 가끔은 내가 이 친구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이 들곤 했다. 친구들을 만나기 전 사전 모임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함께 나눌 주제에 대해서도 준비했지만 쉽게 떨쳐 버리지 못했던 막연했던 마음들이 한 순간 날아갔다. 아 그렇구나 이 친구들에게 나, 기도 어머니는 바로 이런 존재구나. 존재만으로도 반가운, 든든한...’ 저녁을 먹고 다시 만났다. 둥글게 서서 한명씩 손을 잡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었다. 1분이 조금 넘는 짧은 순간이지만 그 사이 친구들은 양금이 있었던 친구들과 화해의 눈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힘든 학업에 대해 고민을 털어 놓기도 했다. 기도 제목을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친구, 이런 저런 고민, 힘든 것들을 함께 나누며 두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었다. 친구들의 순수한 눈빛에 감사함이 묻어 나왔다. ‘주님, 이 친구들이 지금은 당신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 순간을 기억하고 믿음이 씨앗이 오늘 이 순간 뿌려지길 기도 합니다’ 손을 잡고 꼭 안아주면서 우리 반 친구들이 더욱 가깝게 다가왔다. ‘이쁜 딸들, 하나님의 딸들, 정신여고 친구들 모두 사랑한다.’ 각 반 담임 선생님과 함께 친구들의 발을 닦아 주는 세족식을 가졌다. 부끄러운 듯 소심하게 발을 내미는 아이들의 발을 닦아 주며 다시 기도했다. 그리고 이야기 해 주었다. “이 발로 귀한 일을 하길 바란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것같이 이 시간 너희가 받은 축복, 사랑을 기억하렴. 너희는 선택 되어졌고 귀한 존재란다.” 발을 내민 친구들보다 더욱 은혜 받는 순간이었다. 눈물이 고인 눈으로 감사하다고 이야기 하는 친구들을 보자 기도 어머니라는 귀한 사역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했다. 친구들의 축복송을 가슴에 안고 캠프장을 떠났다.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는 밤이었다.

<학원선교 기도어머니 _ 이은주>

2012년 주님의교회 항존직선거 결과보고

- 일시: 2012. 10. 7 (08:30~15:30) / 10. 14 (08:30~15:30)
- 총투표자수: 1,289명 (1차) / 1,050명 (2차)
- 장소: 정신학원 본관 1층
- 유효투표수: - 장 로 1,273표 (1차) / 1,029표 (2차)
- 권 사 1,271표 (1차) / 1,020표 (2차)
- 안수집사 1,272표 (1차) / 1,031표 (2차)

장 로



노봉옥



정종국



강진식



이용수

< 4 명 >

권 사



윤성숙



엄성임



김영희



이송희



손정아



원옥윤



이준숙



김영남



이해자



우현숙



이해선



홍성현



심미숙



김신정



유혜경



유희정



송정애

< 17 명 >

안수집사



김충권



석관징



김건홍



이형구



정의영



최오섭



신영백



이명기



이승원



안성봉



김하방



권영식



이종만



정해천



김정래



김병연



안경상



최영인

< 18 명 >

수고하신 이들 _

- 선거관리위원: 목사: 박해성 / 장로: 박대길, 조성득, 박중순, 김학원 / 전산: 남성엽 / 홍보: 신형섭 / 회계: 김애란 (8명)
- 선거 실무위원: 2012년 6월 임직 권사 (20명) 및 안수집사 (18명)
- 교회 사무실 직원